광주 도심, 외곽보다 최대 8.1도 더 뜨겁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열섬 연구

아파트 숲·막힌 바람길 탓 가로수 관리 등 대책 시급

광주시 도심이 외곽 지역보다 최대 8.1도 더 뜨거운 심각한 열섬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지라는 지형적 한계 속에 빽빽한 아파트 숲이 바람길을 막고 과거에 비해 12.4%나 급증한 불투수 면적이 도심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 가로수 관리 대책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폭염대비 도시 열섬현상 원인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최근 10년(2013~2022년) 여름철 평균 최저기온은 과거 평년(1981~2010년) 기준에 비해 1.1도 상승했다.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치솟는 폭염 일수는 2000년부터 2019년 평균 21.4일에 달했다.

연평균 17.7일(1991~2020년) 수준이던 열대야 일수는 20일(2011~2020년)로 뛰었다.

열섬 현상도 심각하다.

동구 충장로의 최고기온은 무려 44.2도를 기록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외곽 주거 지역인 북구 문흥동은 36.1도에 머물러 8.1도의 격차를 보였다.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도시 구조가 꼽혔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 비율이 2010년 대비 2020년에 12.4%나 늘어나면서 빗물을 머금지 못한 지표면이 태양열을 고스란히 흡수해 온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 특유의 분지 지형으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밀도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자연 바람길을 차단해 버린 점이 녹지 단절 등과 맞물려 열기를 가두는 구조적 열취약 도시가 된 배경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연구진은 근본 해결책으로 열환경 구조 개선과 촘촘한 폭염 저감 수단 확충을 제안했다.

도심 보행축을 중심으로 단순히 실내 무더위 쉼터를 늘리는 것을 넘어 10㎛크기의 미세 물입자를 뿜어내 주변 온도를 5도에서 7도가량 낮추는 쿨링포그와 쿨링로드 등 생활 밀착형 냉각망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물과 도로 표면 온도를 물리적으로 확 낮추는 설비 도입도 시급하다. 무등산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거대한 도시 바람길 숲 확보도 장기적 처방으로 제안됐고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시 건물 간 통풍 확보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

촘촘히 봄 마중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 담양천을 찾은 시민들이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효천동 마을버스 재운행…대촌동 노선만 사라졌다

715번 2대서 6대로 증편…이장·양과동 주민 "여전히 소외"

대촌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소외〈광주일보 2025년 11월 11일 7면〉 문제를 야기했던 마을버스(715번)가 재운행키로 하면서 애먼 대촌지역 이장·양과동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당초 마을버스가 노선을 축소하면서 대촌동을 운행하던 버스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버스 노선을 조정했는데, 마을버스가 재운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촌동을 지나는 버스 노선만 축소된 꼴이 됐기 때문이다. 마을버스회사 멋대로 운행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오는 3월 3일부터 마을버스 715번 노선의 운행 횟수가 기존 2대에서 6대로 늘어난다.

마을버스 715번은 광주시 남구 지석동의 대촌 한일베라체 정류장에서 남구 임암동의 효천1지구를 거쳐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까지를 지나는 노선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마을버스가 운수사 적자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효천1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겠다며 시내버스 대촌 70번 노선을 변경해 효천1지구를 경유하도록 변경했다.

이 때문에 남구 대촌(이장동)의 복수~향등 마을 노선은 대촌 70번 노선에서 갑작스레 제외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져왔다. 특히 교통 취약자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대촌 이장·양과동 주민들의 이동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복수~향등지역을 지나는 버스는 대촌 170번, 송정99번, 대촌 171번으로 총 3대지만 배차간격이 최소 45분에서 최대 350분에 달하며 주민 불편을 막기엔 역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구는 대촌 70번 노선 변경과 동시에 남구 지역 내 기관들을 지나는 무료셔틀버스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9일부터 노선을 확대하기도 했다. 다만 셔틀버스조차 대촌 이장·양과동 지역을 노선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동권 보장 효과는 없다시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마을버스가 증편된 이후에도 수요 측면에서 대촌 70번의 노선은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대촌동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복수~향등 지역을 지나는 버스의 배차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증편을 위해 버스 회차공간 추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사용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순천 장박골 습지

광양 합강습지

순천 장박골 습지·광양 합강습지 정밀조사

국립생태원 연구사업 대상지 선정…3월부터 멸종위기종 등 조사

순천 조계산 장박골 습지와 광양 합강습지가 '내륙습지 정밀조사 연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내륙습지 정밀조사 연구사업' 대상지로 순천 조계산 장박골 습지와 광양 합강습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5월 순천 장박골, 순천 동천하구, 광양 합강, 광양 세풍, 곡성 제월습지 등 5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말까지 이들 신청지에 대한 기초자료·현장조사 등을 거쳐 순천 장박골습지와 광양 합강습지를 최종 정밀조사지로 선정했다.

국립생태원은 습지전문가를 선정, 습지 생태·수문·지형·식생 등을 종합해 보전 필요성과 관리 방향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순천 조계산 장박골습지는 해발 750m에 위치한 산지형 고산습지로, 서어나무 등 식물군락이 형성돼 있으며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도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광양 합강습지도 동천·서천·억만천·인덕천 등 4개 하천이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기수역 습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2급 7종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전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5개소와 해양수산부 지정 6개소를 포함, 총 11개소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아동 공공후견사업 대상지 선정

전남도가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공공후견인이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나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아 아동의 일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2023년)를 시작으로 서울·인천(2025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후견 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전남이 처음이다. 공공후견 제도의 확대로 지역 간 아동 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지역 시·군의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면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후견인 선정에 들어간다.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된다. 공공후견인은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시·군도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로부터 후견 종료 시까지 후견인의 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한 아동의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수산업경영인 모집

도해양수산과학원 27일까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1월 1일 현재 어업인후계자인 경우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어업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경영인은 60세 이하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뒤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 중인 어업인이나 수산 신지식으로 선정된 도민이다. 어업인후계자 192명, 우수경영인 41명을 뽑는다.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9개 지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